

찾아가는 IP상담, ENVEX2025 현장에서 만나다

- 특허청, ENVEX2025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특허상담 서비스 실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6. 11.(수)~13.(금)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ENVEX* 2025)에서 ‘지식재산 상담부스’ 운영과 함께, 전시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특허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ENVEX: Environmental Exhibition (한국환경보전원 주관)

올해로 46회를 맞이하는 ENVEX는 매년 약280개의 국내외 환경기술 전문 기업이 참가하고 4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모이는 국내 최대의 환경 산업 전시회이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ENVEX에서 지식재산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환경기술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애로사항 청취·해결을 위한 상담을 제공해 왔다.

이번 ENVEX에서 특허청은 기존 상담부스 운영 외에도,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관이 직접 기업 부스에 방문하여 기업에서 출원중인 특허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기업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출원인 이익 제도를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특허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 상담서비스를 통해 심사관은 기업의 기술을 직접 확인하여 핵심 기술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기업은 특허심사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권리 안정성이 높은 ‘명품특허’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탄소중립과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중대한 과제 속에서 환경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특허청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명품특허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화학생명심사국	책임자	과 장	정기주 (042-481-5426)
	환경기술심사팀	담당자	사무관	손연미 (042-481-8151)